

정치,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봉래의 가치연구

이애경* · 임응희**

동덕여대 무용과 교수*, 동덕여대 박사과정**

I. 서론

II. 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봉래의

III.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봉래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답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시대에서의 우리들의 위치를 반영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답 중의 일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하는 더욱 광범위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¹⁾ 이 말의 뜻은 지난날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지극히 현실적인 표현일 것이다.

역사는 죽어있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맥락이다.²⁾ 현대의 문명이 과거의 여러 문명과 같은 길을 걸으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일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현대의 사태와 흡사한 과거의 사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러한 지식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가능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다.³⁾ 이처럼 역사의 교

1) E. H. 카야, 『역사란 무엇인가』, 박성수 (역)(서울: 도서출판 민지사, 2005), p.13.

2) 신봉승(2004), 『직언』 (서울: 도서출판 善), p.14.

훈은 우리의 과거를 역사적·사실적으로 분석·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입체적·동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미래적 전망까지 가늠해보는 것으로써 미래에 관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⁴⁾

역사의 효용성은 과거의 사실을 통하여 현재의 교훈과 미래에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 그 자체는 현재의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역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를 인식하는 역사적 자료에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⁵⁾

단지 흘러간 사건이나 사실로 인지하는 역사가 아닌 역사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 측면에서 역사적 얹의 당위성은 부각된다. 오늘의 현재성이 내일의 과거가 되는 쉽없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주춤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대라는 구호 아래 모두 하나가 되어가려 하는 지금, 진정 우리의 것을 국제화시키는 일은 가히 국가적 위업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다. 글로벌 시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참뜻은 첫째, 다 같이 똑같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각국의, 각자의 특색과 우수함을 살리며 또한 정체성의 모호함에 빠지지 않는 민족과 국가의 존재이다. 둘째, 그러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협력과 함께 발전상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역사를 인식함과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인식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초석과 같은 일이다. 우리만의 것을 국제화시키는 데 먼저 우리 것을 바로 인지한다는 것은 첫걸음일 것이다.

지난 정월대보름 국립국악원에서는 뜻깊은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봉래의(鳳來儀)'란 정재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일반인들에게 선보였다. 정재 봉래의는 현재 재현작업으로 문헌이나 무대에 올려진 여타의 정재들과는 분명 격이 다른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녹아 있는 사적으로 중대한 정재이다. 머리말에

3) A. 토인비, 김진병 역(1983).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범우사), p.6.

4) 최종고(1997). 『법학통론』 (서울: 박영사), p.228.

5) 김경수(1998). 『조선시대의 사관연구』 (서울: 국악자료원), p.13.

서도 밝힌바 있듯이 역사는 단지 사건과 기록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과 기록에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찾아내는 게 중요쟁점이다. 정재 봉래의가 시사하는 그 시대의 다각도의 역사적 의의, 가치와 함께 더 나아가 현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사적 의미와 가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도가 본고의 연구의 필요성의 맥락을 이루며 정재 봉래의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하게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고의 연구의 목적은 정재 역사상,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를 지닌 봉래의를 정치,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그 시대상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함축적인 사적 의미와 가치를 현 시대의 초점에서 밝히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 연구는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의 관계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민족의 역사와 그로 인해 빚어지는 일련의 사건과 문화적 배경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의도에서 봉래의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정치적 관점에서의 봉래의
- 2)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봉래의

3.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재 봉래의의 형성 배경부터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아우른 총체적 기록을 토대로 한 사상중심의 공식적 연구와 정치적 관점에서의 통시적 연구를 함께 병용하였다. 문헌고찰을 주 연구 방법으로 삼았으며,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역사서, 논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정재 봉래의의 창작 배경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이므로 이를 취급한 관련 논문과 논저, 역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기록의 부족과 검증이 불가한 부분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설정하였다.

II. 정치적 관점에서의 봉래의

1. 봉래의 정재의 형성배경

가. 봉래의

조선조 궁중에서 거행하던 큰 의식 중에는 제례(祭禮), 조회(朝會), 연례(宴禮)가 있었다. 이 모든 의식에는 반드시 음악과 정재가 수반되어 거행하게 되었으나 조선의 개국 초에는 여기에 연주될 음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개국 초 정도전(鄭道傳), 하륜(河崐) 등이 전래하던 악곡에 가사를 새로 지어 연주하도록 하였으나 나라 음악이 이 정도로 충족될 리 없었다. 세종대왕에 이르러 의식과 음악을 정비하고 새로운 음악을 창제하고 악기를 제작하여 기보법을 창안하여 악보를 만드는 국가적인 대역사를 이룩하였다. 세종대왕이 만든 큰 음악 중의 하나가 봉래의이다. 봉래의는 노래와 춤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종합음악형식으로서 이 음악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인자(前引子), 진구호(進口號), 여민락(與民樂), 치화평(致和平), 취풍형(醉豊亨), 후인자(後引子), 퇴구호(退口號)-

전인자와 후인자는 각기 전주(前奏)와 후주(後奏)에 해당하는 관현악곡이고 진구호와 퇴구호는 정재의 시작과 종료 때 정재를 인도한 죽간자(竹竿子)가 부르는 간단한 한문시의 구호이다. 전인자와 진구호, 그리고 후인자와 퇴구호의 핵심되는 부분이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인데 이 세곡은 노래와 춤 관현악을 연주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여민락과 치화평, 취풍형의 노래는 모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가사로 한 것으로 여민락은 한시를 치화평과 취풍형은 국한문을 가사로 하였다. 봉래의의 악보는 세종실록 권 140부터 권145에 기록되어 있으며 무보는 악학계범(樂學軌範) 권 5에 수록되어 있다 또 대악후보(大樂後譜) 권3에도 치화평과 취풍형의 악보가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래의는 조선왕조의 건국이념과 정당성을 표상하며 창제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한 용비어천가를 시, 가, 악, 무의 형식으로 제작된

규모가 큰 정재이다. 용비어천가를 詩로, 창사를 歌로 반주음악을 樂으로 춤을 舞로 이끌어간 것이 정재 봉래의이다.

나. 용비어천가의 생성배경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시가작품이다. 전체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제상 국문약장이 한문약장보다 우선한다.

용비어천가의 제작 동기는 선조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의 건국과정이 그렇고, 왕위계승을 둘러싼 골육상쟁이 더욱 그러하였다. 더욱이 조선왕조가 표방한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라는 성리학적 가치 규범과 역성혁명이라는 실제적인 건국과정은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었다. 또한 건국주인 태조에서 태종으로 이어지는 왕위계승도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말하자면 조선의 건국과정이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살육으로 점철된 권력 투쟁의 과정은 언제든지 전례로서 재연될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안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왕권 강화를 통한 왕조 영속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 여기에는 자연히 건국 초기부터 정치적 걸림돌이었던 역성혁명의 당위성 및 태종 이방원으로 이어지는 왕위계승을 정당화하여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⁶⁾. 이러한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것이 용비어천가이다.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정인지, 권제, 안지에게 명하여 짓도록 한 것이다. 세종 27년(1445)에 일단 완성되었으니,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1년 전의 일이다. 세종은 원고를 보고서 기뻐하며 노래 이름을 용비어천가라 지었다 한다. 또한 노래에서 다룬 사적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염려해서 최항, 박팽년, 강희안, 신숙주 등에게 명해서 자세한 주를 붙이도록 했다. 그 다음 해에는 태조실록을 들여놓고 참고한 일이 있어서 말쑥이 일어나기도 했다. 2년 동안의 주해작업 끝에 마침내 세종 29년(1447) 2월에 완성을 보고, 10월에는 간행된 책 550부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용비어천가와 그 주해를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으니, 두

6) 구사회(1992). 한국약장문학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4.

가지 일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건국은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의한 것이므로 유교정치의 충절사상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국의 정당성을 제대로 변명하지 않고는 왕조의 권위가 설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정음의 실효성을 시험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용비어천가가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은주혁명(殷周革命)을 모델로 내세워 고려 왕조의 폭정 때문에 천심과 민심이 조선왕조로 옮겨왔다는 서사에서 드러난다. 또한 태종의 왕위 탈취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당에 대한 서설은 한참 뒤에 나오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무문의 변을 훨씬 앞서서 서술해 놓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⁷⁾

용비어천가의 창작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비어천가는 찬양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서사시이다. 중세 이전의 대표적인 문학양식인 서사시가 15세기의 조선에 필요하게 된 데는 그만큼 까닭이 있는 것이다. 당시 새 국가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왕조의 권위를 상징할 신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조선의 건국은 나라의 주인만 바꾸는 단순한 역성혁명이 아니었다. 고려의 중세적 국가체제는 원나라에 복속되면서 파괴되고 고려 말기는 온전한 국가질서를 가지지 못한 시대였다. 14세기 중엽 원제국의 붕괴는 우리나라에 질서의 공백상태를 가져왔고, 여기에 중소지주 위주의 근세적 정치사회체제를 새로운 틀로 정착시킨 것이 조선 건국의 의미였다. 보편 타당성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배경으로 이 의미를 찬양하고 백성에게 선전함으로써 국가체제를 안정시키려는 세종의 다른 시책들과도 더불어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일이었다.⁸⁾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긴 함축적 서사시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훈민정음 반포 이전에 그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창작한 것이다. 정음(正音)과 한자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음의 실용화를 시험한 용비어천가

7) 신명숙(2004). 여말선초 서사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74-75.

8) 김기협·김성철(1997). 『역사로 읽는 용비어천가』 (서울: 들녘), pp.440-441.

는 한자에 정음을 따로 부기(附記)하지 않아서, 같은 시기 월인천강지곡이 정음과 한자를 병기(併記)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미 한자를 알고 있는 식자층을 대상으로 정음 사용을 실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조(六祖)의 사적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후왕(後王)이다. 세종을 포함해 조선 왕조를 포함해 군왕은 조상의 수고로움과 천명이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당부이다. 결국, 용비어천가의 찬자들은 사적을 칭송하기 위해 ‘송(頌)’ 짓지 않고 서사시를 지음으로써 일방적 칭송(稱詡)보다 왕을 권계(勸戒)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⁹⁾

이와 같이 뚜렷한 창제 이유가 내재되어 있는 용비어천가를 시, 가, 악, 무의 형태로 정재 봉래의를 만든 이유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때, 정재의 일반적인 개념과 목적인 선왕의 덕을 칭송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선왕들의 창대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폭넓게 분산시켜 정치적 안정을 여러모로 꾀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창제된 정재가 비단 봉래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몽금척(夢金尺)과 수보록(受寶錄)도 건국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제되어졌다. 허나 봉래의와 비교하자면, 그 당위성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것으로는 단연 봉래의가 정재 가운데 독보적으로 방대한 규모라 할수 있겠다.

2. 고종조의 봉래의 복원

봉래의에 대한 최초 기록은 15세기의 세종조의 것이지만 춤의 절차가 상세히 기록된 것은 1594년에 제작된 『악학궤범』이다. 봉래의는 『악학궤범』 이후 1628년의 의궤에서 그 이름이 보인 뒤 이후에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가 1893년의 흥기에서 다시 발견되고 이후 1894년과 1901년의 잔치에서도 계속 연행이 되었고, 이왕직아악부를 거쳐 현재에 이른다. 17세기 초기를 마지막으로 19세기 말까지 270여년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정재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한번 정재가 사라진 것을 복원하는 경우는 이왕직 아악부 시절 이전에 이르기까지는 없었다. 계속 연행이 되어

9) 신명숙(2004), pp.76-77.

전해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한번 사라지면 그 뿐이었다. 그러나 유독 봉래의만이 고종조에 와서 복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당시의 정치상황과 고종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중엽은 새로운 사회경제, 정치적 변화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수공업과 광업, 농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상품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화폐의 유통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많은 화폐자본을 축적한 상업자본가들의 등장과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안으로는 민중의식의 성장과 밖으로는 자본주의 열강들의 지속적인 침입으로 정치, 사회, 경제, 사상,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종은 국민정치에 기반을 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적인 개화를 추구한 개명군주(開明君主)로서, 고종에 의해 뒷받침된 개화당을 통해 자주적 다변외교(多邊外交)를 추진하여 북방의 주변열강과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이들과 외교통상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자주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개화에 힘을 쓰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나간 고종이 1893년 왕세자의 생일을 기해 이미 300여 년 전에 사라지고 연행되지 않는 봉래의 정재를 굳이 복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1897년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광무개혁을 단행할 것을 예비하여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암시하는 뜻에서 였던 것 같다. 고종은 날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국제 정세 속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의 수립과 왕실의 권위와 위엄, 조선의 지속적인 변명을 위하여 노력을 하면서도, 이미 변화된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또다른 건국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왕세자의 생일 잔치를 계기로 조선건국 당시 건국의 당위성을 만천하에 알렸던 대형 작품인 봉래의를 복원했다는 생각이다. 한편 고종이 세자의 2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양로연을 준비한 것이 세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봉래의의 복원 시기를 자신의 생일잔치를 위시한 왕가의 다른 잔치가 아닌 유독 왕세자의 생일잔치로 택한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고종은 이와 같은 자신의 의지가 당대에서 이루어질뿐 아니라 왕세자에게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결국 봉래의 복원 작업은 단지 영화로워던 옛날을 꿈꾸는 복고주의적인 환

상에 의한 작업이 아니라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조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제도 나라를 준비하는 개혁의 작업을 암시하는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¹⁰⁾

III.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봉래의

1. 유교사상

조선 개국 초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정도전, 조준 등은 고려 말에 불교의 정치적·사회경제적 폐단을 체험했고 불교를 배척했던 유학자적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문화의 방향은 유교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¹¹⁾ 조선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교사상은 성리학으로 이는 조선 중기에 서경덕, 이이, 이황에 의해 전성기를 맞는다. 이 성리학은 유교사상이 중국의 송대에 와서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을 수용하여 유교경전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형성한 유교철학의 체계를 말한다.¹²⁾ 성리학의 기본적인 체계하에 조선시대 유교정치는 덕치(德治), 인정(仁政)을 근본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하였다. 국가의 모든 의례와 제도를 유교적으로 정비하고,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유교경서에 대한 교양과 유교윤리(삼강오륜)가 일반화·생활화되는 것이 유교정치의 이상이었다.¹³⁾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태어남에 있어, 정치 사회의 모든 면을 정비하며, 고려시대의 것을 철저히 배척하며 사상까지 새로이 접목시킨 것은 더욱이 조선왕조 건국의 이념이 모든 것에 새롭게, 바르게 안착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배어있다고 하겠다.

유교사상으로 무장한 궁중의 제례(祭禮), 조회(朝會), 연례(宴禮)는 일부 계층이 주도적으로 행하던 행사였다. 비록 서민이나 민중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는 없으나,

10) 김경희(2001). 『한국음악연구』, 한국국악학회, 29(1), pp.290-291.

11) 한국사 특강편찬위원회(1990). 『한국사특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52.

12) 금장태(2001). 『한국유교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p.45.

13)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1990). p.138.

지도층과 일부 계층이 수용하여 생활에서 유교사상을 전파·유포시킨다면 피지배 계층의 삶 속에 스며들거란 것을 예상했다고 본다. 그 전파의 목적을 위해 여러 장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교사상의 전파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 본고에서 다루는 봉래의일 것이다.

2. 봉래의에 나타난 예악사상

조선시대에는 예(禮)·악(樂)·형(形)·정(政)을 통달해야 왕권을 갖춘다고 하면서 예의(禮儀)로 민심을 조절하고, 음악(音樂)으로 백성의 소리를 조화시키며, 정치(政治)행실을 한결같게 하여 예악(禮樂)의 교화를 시행하고 형벌(刑罰)로 간사함을 막는 것¹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예악의 영향을 중요시 했다. 악기(樂記)에서 이르기를 “정치가 인심을 감응시키는 바를 신중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써 뜻이 가는 바를 인도하여 반드시 절도에 맞게 하고, 악으로써 성(聲)이 말하는 바를 조화롭게 하여 어그러짐이 없게 하며, 정치로써 잘못된 바를 가르쳐 그 행실을 한결같게 하고, 형벌로써 따르지 않는 바를 벌주어 간사함을 막았으니, 예악형정의 네 가지 일은 비록 서로 다르나 그 도달점은 하나같이 감응시키는 바를 신중히 하는 데로 돌아가지, 즉 민심을 화해롭게 하여 치도(治道)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고 유씨¹⁵⁾가 말했다.¹⁶⁾ 또 장락 진씨가 말하기를, “마음이 물(物)에 감응하여 움직인 것이 정(情)이고, 정이 움직여 형성되는 것이 성(聲)이니, 성이란 정이 발현된 것이고, 음(音)이란 여러 성이 배열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치세엔 도(道)로써 욕망을 이기어 그 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니 아·송(雅頌)¹⁷⁾의 음이 그것이다. 그러니 정치가 화평하지 않겠는가? 난세엔 욕망으로 도를 이기어 그 음이 원망에 차 있고 노기를 띠니 정·위(鄭衛)의 음이 그것이다. 그러니 정치가 어긋나지 않겠는가? 망해가는 나라의 음은 상

14) 조남권·김종수(2005). 『동양의 음악사상 樂記』(서울: 민속원), p.13.

15) 유씨: 유이(劉翽), 송인(宋人), 경력연간(1041-1048) 진사, 처주 지사를 지냈다. 호원(胡瑗)에게 배웠고, 저서로 『칠경중의(七經中議)』, 『명선집(明善集)』, 『거이집(居易集)』이 있다.

16) 조남권·김종수(2005). p.28.

17) 아(雅)·송(頌): 雅는 정이니 정악의 노래이다. 그 篇이 본래 小雅·大雅의 구별이 있다. 小雅는 연향할 때의 음악이고, 大雅는 조회할 때의 음악과 제사의 음복(飲福)에 복을 받고 경계를 아뢰는 내용이다. <『詩經』小雅 序>, 앞의 책, pp.31-32.

간복상(桑間濮上)¹⁸⁾의 음이니, 슬프고 시름겨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또한 곤궁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보건대 세상이 다르면 음(音)이 다르게 되고, 음이 다르면 정치가 다르게 된다. 어떻게 성음(聲音)이 스스로 정치와 더불어 통하겠는가? 대개 성음의 도(道)가 마음과 정(情)에 근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서경』에 ‘팔음(八音)으로 치란(治亂)을 살핀다’라고 말한 것과 『국어』에 ‘정치는 음악을 상징한다’고 한 것이 또한 이 뜻이다.”라고 말했다.¹⁹⁾ 이는 선조들이 생각하는바 정치가 곧 음악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말이다.

정재 봉래의의 창사에 보면 예악사상(禮樂思想)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용비어천가의 여러 장을 수도 없이 노래하는 가무(歌舞)의 압권이라는 평이 있을 만큼 정재 가운데 예악사상이 잘 드러난 춤이다. 봉래의에서 표출하고자 하는 예악사상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문구로, 역성혁명으로 세운 조선이 건국이 불가피한 하늘의 뜻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정치적 공덕을 악으로 표출하려는 예악사상을 내포한다. 선왕들의 공덕을 표현하고자 봉래의 악장을 빌어 춤과 노래로 형상하고 있다. 또한 악으로 당대의 태평성대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음이 공경스럽고 부드러움다는 것은 좋은 시절이니 그 음 또한 부드럽고 평화롭다는 의미인 것이다. 창사 치화평의 불휘장과 불근새장에서 노래한 것을 보면, 뿌리가 깊다는 것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샘이 깊은 물은 유서가 오래된 나라를 뜻한다. 이는 조선왕조의 문화의 번창과 왕조의 무궁함을 칭송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조선의 무궁한 발전과 송축을 기원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국가경영의 큰 예를 중국고사를 통해 표출한 불근새장은 의로움을 갖추며 인(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⁰⁾

예악사상의 근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배경을 읽을 수가 있다. 소리(聲)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心)은 평온한 상태와 불안한 상태에 따라 소리로 표현하게 되는 순환고리와 같은 연관이 있다. 곧, 나라의 평화로움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18) 간복상(桑間濮上): 濮水의 물과 뽕나무 숲 사이. 복수는 黃河의 지류로 춘추시대의 위나라 지역에 있다. 이곳은 옛날 은나라의 악사인 姪이 紂王의 명을 받고 음란한 음악을 지었다가 武王이 주왕을 정벌하자 투신하여 죽은 곳이다.

19) 조남권 · 김종수(2005). pp.31-32.

20) 김윤희(2002). 조선 세종조 궁중정재 창사에 나타나는 예악사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5.

나오는 소리에 귀기울여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 예약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곧 인본주의 사상이며 그것이 곧 조선의 정치사상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본다.

IV. 결 론

역사의 효용성이 과거의 사실을 통하여 현재의 교훈과 미래에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기에,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함께 부단한 역사적 의미의 발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본고의 연구의도가 지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조선조에 창제되어진 봉래의에 주목하는 바도 그러하다.

봉래의가 지니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는 여타의 수많은 정재와는 다르다고 보는게 본인의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문화 사회적으로 봉래의는 표충부터 심충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한 조선조 건국이념을 담은 정재 중 그 규모가 가장 방대한 정재이다. 시·가·악·무의 종합예술이라는 평을 얻을 정도이다. 본인은 봉래의가 조선조 정재 중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가장 독보적이기에 현대의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봉래의가 정치적, 문화·사회학적으로 지니는 가치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봉래의는 정치적으로 조선왕조 건국의 이념을 확고히 하고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로 고려시대까지 행해지던 정재의 성격에서 더욱 강화된 이미지로 작품화한 정재이다. 선왕의 공덕을 칭송하는 수준의 정재가 아니라, 건국 이념의 정당성을 시로, 노래로, 춤사위로 이끌어간 작품이다. 승유억불정책의 이념 아래 조선조 개국 시기에 몸의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제한하던 유교사상의 표상아래 몸의 움직임인 춤사위로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표출하게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중요시 될 만하다. 이는 글과 음악으로 사상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와 같이 몸으로도 사상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역사의 숨은 뜻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러기에 조선의 건국이념을 정당화한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하여 춤사위를 창제한 봉래의가 탄생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건국이념의 정당성만이 봉래의 존재양식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종 시대의 복원이 이를 뚜렷하게 뒷받침하는데, 안팎으로 변화양상이 극심했던 19세기 고종은 하나의 희망이자 이상향으로 봉래의를 바라보고 복원하였다. 이는 단순히 향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위기의 조선을 재정립하고 그 위상을 드높이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는 개혁의 의지가 녹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둘째,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봉래의는 유교사상과 예약사상의 기틀 위에 창제되어진 정재이다. 불교의 관점에서의 사상이 아니라 성리학의 기본적인 체계 하에 유교사상이 조선의 지배적인 중추사상이 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새로 정비하고 전파해야 하는 유교사상과 예약사상의 전파꾼으로 정재 봉래의가 선택, 창제 되었다는 점이다. 지배계층의 엄격한 분화가 있기에 계층간의 문화교류는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배계층의 향유문화로 유교사상과 예약사상이 농축아 있는 봉래의는 상징적인 의미를 띤다. 단순한 전파는 아닐지언정 문화와 사상의 구심점에서 창제되었다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재 봉래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나간 역사의 이면에 그 해답과 지침서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을 찾고 해석하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과제이자, 현실의 진취적인 태도에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Е. H. 카야. 『역사란 무엇인가』, 박성수 (역), 서울 : 도서출판 민지사, 2005.
A. 토인비. 『역사란 무엇인가?』, 김진병 (역), 서울 : 도서출판 범우사, 1983.
구사회(1992). 한국약장문학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금장태(2001). 『한국유교의 이해』, 서울: (주)한국학술정보.
김경수(1998). 『조선시대의 사관연구』, 서울 : 국악자료원.
김경희(2001). 『한국음악연구』, 한국국악학회, 29. 1.
김기협, 김성철(1997). 『역사로 읽는 용비어천가』, 서울 : 들녘.

김윤희(2002). 조선 세종조 궁중정재 창사에 나타나는 예악사상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명숙(2004). 여말선초 서사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봉승(2004). 『직언』, 서울 : 도서출판 쉐.

조남권, 김종수(2005). 『동양음악사상 악기』, 서울 : 민속원.

최종고(1997). 『법학통론』, 서울 : 박영사.

한국사 특강편찬위원회(1990).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논문투고일 2006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3일

심사완료일 3월 20일

Studies on the Values of BongRaeEui in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Standpoints

Ae Kyung Lee*, Eung Hee Lim**

Professor of Dance

*Dongduk Womens Univ**

Doctoral Student of Dance

*Dongduk Womens Univ***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after studying the values of JeongJae-BongRaeEui in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standpoints.

The BongRaeEui is intensionally created as one of masterpieces, which is extended the images of JeongJae from the Goryo dynasty, to solidify the founding philosophies of the Chosun dynasty in political purposes.

The JeongJae is not simply admire the precedent kings but to convey the founding philosophies of the Chosun dynasty in poem, songs and Korean dance (Choom-Sa-Wie).

It sounds paradoxical to expose the founding philosophies of the Chosun dynasty by the physically active Choom-Sa-Wie under the confucian ideas to limit the physical activity at the early Chosun dynasty adopting the policies of Buddhism suppression and confucianism admiration.

I think that the philosophy can be transmitted not only by the body motion but also by the writing and music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s.

For these reason, the BongRaeEui having Choom-Sa-Wie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lyric words of the Yong-Bi-Eo-Chun-Ga to justify the founding philosophies of the Chosun dynasty.

The justification of the founding philosophies of the dynasty is not the only explaining reason to the existence of BongRaeEui. The resoration of BongRaeEui was very distinct in the Gojong periods. King Gojong restored the BongRaeEui as a way of hope and utopia in the 19th centuries which have enormous changes inside and outside the Chosun dynasty. I think that this was not because of simply nostalgia

standard but reestablishing the risky Chosun dynasty, leveling up the its phase for preparing the incoming era and even compromising the will of reform.

Secondly, the BongRaeEui is the JeongJae to be created on the basis of confucian idea and docorum philosophy in cultural and social standpoints. The confucianism from the Chinease Gong ideas (Sung-Ri-Hak) had been the wide-spreading core philosophy of Chosun dynasty. In other words, JeongJae (BongRaeEui) was created and selected to spread the confucian idea and docorum philosophy.

The BongRaeEui compromising confucian idea and docorum philosophy has symbolic meanings as enjoyment cultures for the ruling class although the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classes were not occurred because of the restricted separation of the classes. The BongRaeEui has important meanings to be created as a core of culture and philosophy although it was not widely spreaded.

Finally, from the many scopes of researches about the JeongJae (BongRaeEui), I'm think, there is a good clue in the other sides of the passed history to solve the problems that we meet. It is our continuous responsibility to find, search, translate and impose the historical meaning and a good way to get wisdom from the enterprising attitudes nowadays.

Keywords: JeongJae-BongRaeEui(봉래의), Ye-Akthoughts(예악사상), Yong-Bi-Eo-Chun-Ga(용비어천가), Chosun Dynasty(조선왕조), Confucian Idea(유교사상)